

성도의 벗 11

1976

특집 : 레이맨인





16페이지



5 페이지



11페이지



8 페이지



25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블
앤 엘든 테너
매리온 지 롭니

십이사도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6년 11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2권 제11호
통권 136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성도의 벗

1976년 11월호

목 차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1

물문 일지

조지 리 장로: 나는 주님께 빛을 지고 있습니다...로렌스 커민스... 5
다니엘 아파마사가 배담: 우리는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6
통가 토타이 팔레투아: 나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6

레이멘인과 말일성도 그들의 공동 운명.....딘 엘 라슨 7

질 의 응답.....11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앨리스 스트래튼.....13

대관장단 이야기.....16

초원의 친구 기린.....머리 피 프링글.....18

심심풀이.....20

스티븐.....핀 호튼21

총관리 역원의 아내: 아이다 젠슨 롭니 자매.....모린 젠슨 와드.....24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 건설적인 삶...리그랜드 리차즈 십이사도 평의회...27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제랄드 알 쉬퍼.....28

© 1976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 전에 나이가 많은 한 나바호 인디안 형제가 내게 한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전 생애 동안 애써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갑자기 찾아온 느낌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오랜 옛날 형제님의 선조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큰 돌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분열되어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과 갈라지게 되었지요. 우리는 오랜 동안 우회를 한 셈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본래의 길로 되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 역사를 그 인디안 형제는 바로 본 것입니다.

이 레이먼인 형제나 나는 같은 선조를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혈맥 속에 주님이 선택한 선조들 즉 구약 시대의 대축복사였던 아담, 에녹, 노아 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된 마음을 가눌 길 없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선조로 어느 사람보다도 위대했던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지상에서의 성스러운 목적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대 예언자 이삭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아버지인 야곱도 우리의 선조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당시 그 백성의 구원자였으며, 끊임없는 덕성을 보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리하이, 이스마엘, 조렘을 포함하여 오늘날 대부분 교회 회원의 선조입니다.

나는 우리의 선조들이 자기 자기의 길로 갈라져 갔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순종과 반항으로 말미암아 모세

대관장단 메시지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수세기 동안 흩어졌던
요셉의 자녀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형제로 모였습니다.



가 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흠음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의 알지 못하던 복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 28 : 25, 64)

이 예언자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경전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참으셨고,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셨으며, 가증함을 용서하셨고, 간음과 사통을 보고 슬퍼 하셨으며, 불신앙을 보고 눈물 지으셨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결국 불의와 반항으로 그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세계 만국으로 흠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암 9 : 9)

첫번째로, 이스라엘의 북부 왕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년 전에 앗수르에게 정복당하고, 그 백성들이 그곳 땅으로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선조인 이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열 지파”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에브라임 지파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에 흠어져 1,000여년 동안 압후과 배도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분산이 있은지 100여년이 지난 후 유대의 남부 왕국은 느브갓네살 군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주민인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얼마후 그들 중의 일부는 고향으로 되돌아 왔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서부 아시아 지역으로 흠어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 끝나자 예루살렘은 또 다시 멸망되어 불의한 자와 불순종 자들이 그들의 상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스라엘 집합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압후의 세계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추방되기 직전인 기원전 600년경에 주님은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귀한 지파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리하이는 멸망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미대륙에서 그의 나라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위대하고 영감에 찬 지도자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불순종과 반항과 불의에 빠져 주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받았고 흠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흠어진 후 수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나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며, 많은 왕국이 일어섰다가는 쇠망해 갔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가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시고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암 9 : 9)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제 정세가 변하여 유대인이 그들의 소유된 땅 옛 예루살렘으로 집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 역사는 미국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될 땅으로 준비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요셉의 지파가 새 예루살렘에 집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 2 : 2~3)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시작을 보았으나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집합시키는 사업은 세계 방방곡곡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 예언자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 보겠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합 1 : 5)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렘 23 : 7~8)

이스라엘 집합이라는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레이먼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일의 주님의 사업은 이 위대한 약속의 자녀들을 주님의 우리 안에 넣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예언자 리하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기억될 것이요, 감람나무의 원가지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것이라”(니ыл 15 : 16)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레이멘인이나 이방인들도 그들을 갈라 놓았던 큰 돌이 제거됨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레이멘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담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경의 기록이 끝난 후 천여 년 동안 이들 백성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 방황하였으며 미대륙과 바다의 섬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자, 고도로 발달된 문화 등을 잃었고 더우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사업에 관해서도 잊게 되었습니다. 미대륙에 백인이 건너 오면서부터 이들은 무참하게도 추방당하고 살육당했습니다.

이 백성의 멸망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이멘 백성이 이 땅에서 보존되고, 요셉의 이 잔류민들이 다시 약속된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내가 레이멘인들 가운데 살았을 때 레이멘인들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멸망에서 일어나 주님의 약속대로 강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윌포드 우드렐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레이멘인들은 산간에서 장미와 같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국가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보아 이 예언의 성취란 내가 지금까지 읽은 하나님의 어느 계시보다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쉬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선교집, 15 : 282)

그렇지만 레이멘인에 관한 주님의 약속은 이 경륜의 시대에 물론경이 세상에 나오게 되자 성취되기 시작하였으며(이더 4 : 17 참조), 나는 이제 이들이 다시 한번 번창

하여 아름다운 그들의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한 살 때 받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이들 인더안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복문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대는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나 특히 레이멘인에게 전하게 되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시어 이 백성에게 간절한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권능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들이 훌륭한 백성으로 단합될 날을 보게 될 것이며, 그대는 이 백성의 강한 요새의 역할을 하도록 준비될 것임이라.”

분명히 어느 축복사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실을 추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때는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온 세상의 거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리라는 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실대로 실현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멘인 백성들은 수와 영향력에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나바호 인더안이 뉴멕시코주 쉰여섯에서 돌아 왔을 때 그 수는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0,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1억 3천만 명의 레이멘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에서 책임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취업 기회와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들 가운데 세워졌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는 35만명의 레이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그들은 신권도 받았읍니다. 그들 중에는 지부장, 정원회 지도자, 감독, 스테이크 부장, 기타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도 가서 승영을 위한 의식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치적이고 성실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백성이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에서 남부 칠레까지, 하와이섬에서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레이멘인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을 커다란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그들의 가정에 초대도 받았읍니다.

레이멘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니파이인, 조렐린 혹은 요셉인, 기타 다른 사람의 후예라고 단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약의 백성에게 하신 위대한 축복을 스스로 마다 하시겠습니까? 생득권을 스스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이들을 모두 레이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리하이, 이스마엘, 조렐, 물레크, 기타 물론경의 인물의 후손, 그리고 레이멘인의 직계, “레이멘인과 저희의 불화로 말미암아 레이멘인이 된 모든 사람”(교성 10 : 48)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레이멘인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조는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빨리 반항적인 자세를 고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배도에 빠져 영적인 암흑의 밤을 맞았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 멸망으로부터 구원되었으니 첫째로 이방인과 에브라임의 혼합인이고, 그 다음이 요셉의 레이멘인 후손이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6)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레이멘인 여러분은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조에는 니파이나 그의 형제 리하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주님의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의 의로움과 깊은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불속에서도 타지 않았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처럼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한 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더불어 대화하는 이가 누구 이냐?” 이에 다음과 같이 누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화하는도다”(히 5:38, 39)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모든 부를 소유할 수도 있으나,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도 있지만 성신권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높이신 하나님의 왕과 여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레이멘인 형제 자매들을 보고 “어둡고 가증스럽게”만 생각하는 비레이멘인 여러분도 각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선조의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불의와 증오로 점철된 수세기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들 중에 레이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내가이방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저들(요셉의 레이멘인 후손)의 아버지같이 되게 하리니”(니이 10:18)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녀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선택된 백성이며, 이 교회는 이들에게 합당한 유산을 회복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복음이 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날에 시온을 세우려 힘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성신의 능력과 은사를 얻을 것이요, 저들이 끝까지 참을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받들어질 것이요,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니일 13:37)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대륙의 소유권은 조건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성실히 그를 섬기는 자만이 그 땅을 물려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쫓겨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모든 레이멘인과 폴리네시아인 그리고 인디안 여러분께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고 이 땅

을 물려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입증해 보일 것을 권고합니다. 또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목적을 이루도록 강한 힘을 지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십시오.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달콤한 언변과 이상한 철학을 들고 여러분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기적이며 의심스러운 동기로 접근하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합당하게 선출된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독립, 평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디안의 완전 자유를 보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러한 경우만이 지속적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광범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는 이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행된다고 확신합니다. 현재에도 교회는 레이멘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구세주의 복음을 알게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레이멘인에 대한 선교 사업을 확대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 바 있으며, 이들의 반응을 보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레이멘인 지역의 선교부는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다른 어느 곳에 비해서도 많은 개종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음 말씀에서 보듯 옛날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레이멘인들이 성심을 다하여 선선히 주의 말씀을 믿으려 하며, 주가 레이멘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심을 아는도다”(히 6:36) 현재 많은 레이멘인이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레이멘인 선교사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노스는 강한 신앙의 기도를 드려 주님으로부터 레이멘인이 보존되리라 약속을 받았읍니다. 수 많은 말일성도 가족이 매일 무릎을 꿇고 신앙으로 이 형제들 가운데서 이 사업이 번창하고 문이 열리지기를 간구한다면 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겠습니까!

레이멘인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인도하려 오시고 복천년이 시작되며, 지구가 새롭게 되어 낙원의 영광을 받으며, 온 땅이 하나가 되는 때를 준비하는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른 모든 형제 자매와 연합하기 위하여 큰 힘과 위엄을 갖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요 그리하여 이 땅이 저들의 상속의 땅이 될 것이다. 저들이 또한 옛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성을 주 앞에 지을 것이요, 땅이 없어도 저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할 것이요”(이더 13:8)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

몰몬 일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매일의 생활을 통해 얻는 값까지 경험은 모든 말 일성도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체험담을 갖고 있습니다. 응답된 기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받은 영감, 신권의 축복, 또한 교회 보조 조직에서 일하면서 간증을 강하게 해 준 체험담을 아는 회원들에게 들려 줍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성도의 벗사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 리 장로 “나는 주님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로렌스 커민스 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조지 리 장로는 1943년 3월 23일, 콜로라도주 토와오크에서 나바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리 장로는 어린 시절에 그가 태어난 콜로라도주 토와오크 인디언 보호지의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



었고, 현대 문명의 이기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니다. 열두 명의 자녀가 모두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친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모르셨으며, 인디언의 문화에 대한 집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셨고, 열심히 일을 하셨으며, 늦잠을 자지 않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항상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에게 여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땅, 산, 동물, 곤충, 기타 모든 생물체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가르치시며, 식량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항상 보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방울뱀이 우리 오두막집으로 기어 들어 오면 아버지는 조용히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막대기로 살며시 뱀을 말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놓아 주고는 조금도 해를 주지 않겠다고 설명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4킬로나 떨어진 곳에 가서서 물을 길어오곤 하셨습니다. 물이 쾅쾅 어는 겨울에는 어름을 깨고 물을 길어 오셔서 난로 위에 놓고 끓여 음료수를 만드셨습니다.”

리 장로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소개한 사람은 콜로라도주 맨코스 크리크에서 상점을 경영하던 부름필드란 이름의 말일성도 부부였습니다. 그는 후에 그가 알게 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나는 일곱살 때, 연 사흘간을 앓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주 강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가자 그의 부모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제 부모님은 영어를 몰랐어요. 그들은 철저한 나바호였죠”라고 리 장로

는 말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었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흘만에 심장의 고동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관과 수의를 만드셨습니니다. 그는 나를 관 안에 놓고 관 뚜껑을 닫아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때 관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나는……” 하고 리 장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들어 관을 손으로 두들겼고 이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매우 놀라서 관을 들어 올리고 열었습니다.

“내가 한 첫 말은 ‘소다수 좀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마음씨 착한 부름필드씨 부부는 그에게 “소다수 소년”이란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년의 회복이 우연은 아니며, 그가 후에 중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지 리는 아홉살이 되던 해에 침례를 받았으며, 열한살이 되었을 때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첫번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타주 오렘시에 있는 글렌 하커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자신을 인디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피부색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리 장로는 말했습니다.

리 장로는 사우드웨스트 인디언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1967년 12월에 리 장로는 아름다운 코만치 소녀인 캐더린 헤티치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의 주례로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리 장로와 자매 사이에는 여섯살난 아들인 두안 안 마이클과 다섯살난 아들인 캐드 토마스과 10개월된 딸 트리샤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30대 초반에 있지만 그의 학문적인 업적과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받은 상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제 교육 행정학 박사 과정 논문을 마쳤습니다. 1974년에 그는 미국 원주민을 위한 2년제 대학인 아리조나 가나도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지 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그의 따뜻한 성품과 주님에 대한 돈독한 신앙심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항상 “나는 모든 면에서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리 장로는 오래 전부터 그의 나바호 인디언 유산보다는 교회와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월회 일원과 아리조나 홀브르크 선교부장으로서의 새로운 책임은 그와 아내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를 부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로렌스 커민스는 후랜드 지의 부편집인이며, 솔트레이크 하일랜드 스테이크, 스트래트포드 이스트 와드 보조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다니엘

아파마사가

베담 :

“우리는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나는 사모아에서 교회에 입교한 즉시 십일조를 바치려 하였으나 집안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이란 다름 아니라 매달 갚기로 한 집세와 땅값이었습니다. 나는 월 소유주와 매달 갚기로 약정한 날에서 2주일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땅을 되돌려 준다는 조건하에 13에이커의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가게 예산을 어떻게 사

용할 것인가를 기도로 물은 후 땅값을 한달 미루고라도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하고 있고, 소유주도 땅을 되돌려 주기를 바라고 있던 터이라 땅값에 대해 몹시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 주실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쿼미삼아 폐지를 기르고 있었지만 이를 파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십일조를 바치지 며칠 안되어 누가 찾아와서 폐지 일곱 마리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땅값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폐지 값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십일조를 바칠까를 걱정하였으며, 마침내는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서 식비와 기타 비용을 줄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봉급 인상이란 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나는 처음으로 십일조를 내고도 저축을 할 수 있을 만큼 봉급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는 교회에 개종한 이래 큰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나는 아피아 사모아 웨스트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2보좌로, 나의 아내는 장미반 교사와 상호부조회 및 주일학교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

통가 토타이

팔레투아 :

“나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통가 토타이 팔레투아 부장은 그의 축복사의 축복문에서 그가 “...특별한 목적으로 시온의 중심 스테이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주님의 사업을 돕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온 1942년부터 지금까지 이 축복문은 그의 생활의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팔레투아 부장은 수년간 통가의 공립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1955년부터는 교회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는 곧 통가 교회 학교의 종교 과장이 되었으며, 1974년까지 이직을 역임하면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으로부터 통가 누쿠아로파 선교부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김블 대관장님의 전화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전신에서 이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위안도 받았지요”

팔레투아 부장은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물론경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번째의 책이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충만한 복음과 나의 선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민족에 통가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나 나는 주님께서 주신 페이멘인이라는 이름을 쓸 때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 피부는 검은 갈색이지만 나는 내 피가 순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니파이, 리하이,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피가 내 몸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조 리하이가 그의 아들들에게 바랐듯이 나도 나의 형제들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물론경을 이 땅의 모든 가정과 리하이의 모든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전하고, 이들을 시온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회복된 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메리카 인디안과 레이맨인 국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견해 볼때 이러한 관심이란 이들 국민이 교회의 발전이나 운명과는 동떨어진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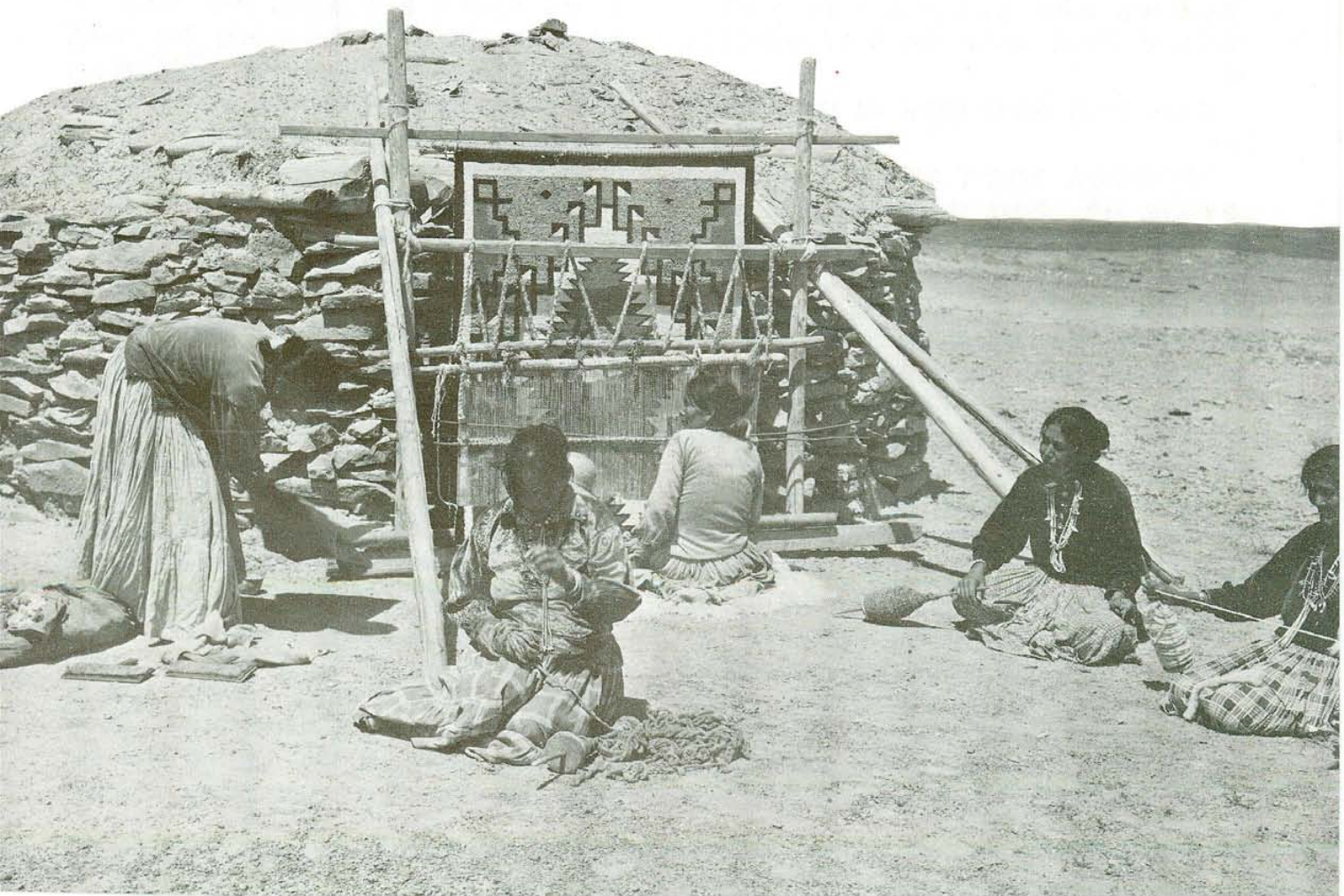
그러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말일의 레이맨인에 대해 갖은 관점이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었다. 아메리카 인디안이 “사라져 가는 원주민”이라고 여겨지고 이들의 멸망을 재촉하기 위해 주거지가

제한되던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예견해 본 것이다.

새로 조직된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있고, 경험있고 유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때에 인구가 조밀한 북동부의 여러 주가 아니고 미개한 서부 인디안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견하였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초기 교회의 탁월한 두 지도자였던 올리버 카우드리와 팔리 피프렛은 교회 본부의 행정적인 일을 제쳐두고 인디안 선교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레이맨인과 말일성도 그들의 공동 운명

던 엘 라슨





당시의 교회 회원들에게는 이와 같이 교회가 인디안에게 지나친 배려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헛된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신권 역원 중에는 레이맨인에 대한 교회의 지나친 선교 활동이 그들의 신앙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까지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윌포드 우드렘 장로는 1873년 1월 12일 이렇게 말했다.

“레이맨인들은 산간에서 장미와 같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국가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보아 이 예언의 성취란 내가 지금까지 읽은 하나님의 어느 계시보다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두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설교집, 15 : 282)

백년 전에 본 레이맨인의 장래는 암담했지만 주님의 택함받은 이 백성에 대한 요셉 스미스와 후계자들의 믿음과 시현은 오늘날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교회가 조직된지 6개월 만에 시작된 올리버 카우드리, 팔리 피 프랫, 피터 휘트머, 지바 피터슨 등의 레이맨인에 대한 선교 활동 이야기는 흥미롭다. 높은 기대, 실망, 끊임 없는 인내, 점차적인 성취감이 접철된 활동이었다. 가장 극적이고 최종적인 대단원의 장이 앞으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야말로 전 교회에서 가장 신앙을 고취시키는 이야기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 기초는 구약 시대 이후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예언된 약속과 함께 얽혀져 하나님과 껄수 없는 성약을 맺은 백성의 잔류민에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올리버, 프랫, 휘트머, 피터슨 장로의 선교 활동은 주님과 그의 종에 의해서 이 복음 경륜의 시대에 성취될 구원 사업의 핵심이 될 예언적인 드라마의 첫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경의 기원과 내용을 아는 말일성도는 왜 요셉 스미스가 당시에 레이맨 가운데서 구원 사업을 시작하였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금판으로부터 물론경의 표제지를 번역하였다. 이 표제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젊은 예언자의 마음 속에 깊은 감명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니파이 백성과 레이맨 백성들의 기록의 요약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잔류민인 레이맨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기록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마틴 해리스에게 빌려준 번역 원고를 읽은 직후 요셉 스미스에게 준 다음과 같은 계시에서도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셨다. “또한 이 간증은 레이맨족과 레뮤엘족과 이스마엘족에게도 알려지리라. 저들은 그 조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불신앙에 빠져 타락한 자들이요.....

“이상의 기록이 실려 있는 이 판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보존되었나니 (교성 3 : 18~19)

레이맨인, 리파이인의 기록을 보존했던 사람에 대해 요셉이 느꼈던 의무감이 어떠한 것인가? 그의 생애의 운명과 목적은 그들 기록 보존자의 것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들과 요셉은 동시대인이라는 느낌마

져 가졌을 것이다. 니파이의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주었겠는가?

“우리 자손의 잔류민들이 우리에게 관하여 알게 되며,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경위를 알게 되고, 저들이 유대인의 후예임을 알게 될 것이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로 인하여 저들은 조상에 관하여 알게 되고 저들의 조상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다시 회복되리니”(니파이이서 30 : 4~5)

이노스의 간절한 기도 역시 요셉 스미스에게 씻지 못할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나의 형제인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오랜동안 힘써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신앙을 가지고 기록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합당할 때에 레이맨인들에게 알리시겠다고 내게 언약하시니라”(이노스서 11, 16절)

모로나이가 그의 백성의 기록에 마지막 말을 적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말일까지 상속의 땅에 거하게 될 레이맨인이었다. 모로나이사 마지막 장에서 그는 지금은 물몬경을 읽게 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감동어린 약속과 권고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기록하여 나의 동포인 레이맨인들에게 전하여...”(모로 10 : 1)

요셉 스미스 자신은 직접 물몬경 백성의 후손에게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한번은 인디안 추장인 케오쿠크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1841년 여름 나부에서의 일이었다. 케오쿠크는 그와 함께 키스쿠코쉬, 아스페누스, 그리고 색크와 폭스 부족의 족장과 병사 약 100여명을 대동하고 왔었다.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이 방문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스미스 대관장은 주님께서 이들 선조에 관해 밝혀 주신 바에 관해 설명하고 물몬경에 담긴 이들에 관한 약속을 읽어 주었다. 예언자가 그들 선조와 그들의 흥망사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약속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그들의 마음은 부풀었다.”

로버츠 장로의 말에 의하면 케오쿠크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나는 몇개월 전에 당신이 내게 준 물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위대하고 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케오쿠크는 거칠게 보이지만 위대한 영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그치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 훌륭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말일성도 교회 역사, 2 : 88~89)

초기에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진 선

교 사업은 모두 레이맨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1844년에 쏘싸이어티 섬에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1852년에 선교사들이 불란서 정부로부터 추방되었으나 1892년에 다시 입국이 허용되었다.

하와이 선교부는 1850년에 개설되었고, 그후 수년만에 선교 사업은 뉴질랜드에 있는 레이맨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들 선교부는 모두 크게 번창하였다.

1851년 남미 최초의 선교사인 팔리 피 프랫과 루퍼스 알렌 장로가 칠레의 발파라이소에 도착하였으나 그 나라는 당시 내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영구 선교부는 설치되지 않았고 남미 대륙에서의 선교 사업은 1925년까지 부진 상태를 계속했다. 1925년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루몬 에스 웰즈와 레이 엘 프랫 장로와 함께 알젠틴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리오 데 라 프라타 강가의 버드나무 숲에서 남미를 복음이 전파될 땅으로 헌납하였다. 벨라드 장로는 그의 기도에서 남미 대륙에 있는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행해질 사업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리하이의 후손이며 물몬경의 예언자가 예견한 대로 죄와 범법으로 인해 오랜 동안 갖가지 역경을 겪은 이 나라의 모든 주민인 인디안들에게서 물몬경에 기록된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사 이들에게 이 사업의 참뜻을 밝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우리를 이을 당신의 종들이 이스라엘 가문의 이 지파에게 주신 당신의 값진 약속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벨라드 장로는 보고서에서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 형제가 간략하게 말했다.그들은 서로를 축복하였고, 이 선교부의 개설로 이 땅의 많은 유럽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교 사업은 인디안에게 집중될 것이다. 참으로 기억할만한 하루였다.”(멜빈 제이 벨라드의 설교와 선교 사업, 브라이언트 에스 핑클리, 데저렛 출판사, 1949년 96~97페이지)

1879년 10월에 열린 교회 대회에서 3명의 선교사가 멕시코 시티에 선교부를 개설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1876년에도 선교부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었다. 나중에 시작된 멕시코 선교 사업 역시 멕시코 혁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멕시코 선교부는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선교부이며, 멕시코에서 개종한 사람의 상당수가 레이맨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1860년 국가 인구 통계에 의하면 이 나라 국민 중 2,600만명이 인디안계로 나타나고 있다.

오랜 동안 남북미와 태평양 도서의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룩되었지만 레

이맨인과 관련하여 교회가 쏟은 노력의 최대의 결실은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다. 최근의 이와 같은 발전은 과거 수년간 교회 인디안 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의 노력에 힘입은 바크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 멕시코, 중미, 남미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 기구가 설립되었다. 칠레,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멕시코, 피지, 뉴질랜드, 웨스턴 사모아, 타히티, 통가 등지에 세워진 교회 학교에 등록된 16,000명의 학생 중 대다수가 레이맨인들이다. 그들은 이 지역 교회 발전의 중추가 될 지도력과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받고 있다.

이 지역 교회 학교에 참석하는 이들 젊은이 이외에도 13,000여명이 미국과 캐나다의 공립 학교나 연방 정부 학교에 다니면서 세미나리반에 등록하고 있다. 유타주 프로보와 하와이 라이에 분교를 두고 있는 브리감 영 대학에도 1,500여명의 레이맨이 등록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는 약 30여개의 스테이크가 레이맨인 지도자로써 조직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서의 선

교 사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에는 약 35만명의 레이맨인 회원이 있다. 이는 전 회원의 약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이 사업의 예언적인 성격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몬경에 담긴 영감찬 예언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미대륙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날의 레이맨인의 선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날에 아버지의 위업이 시작되어 이 복음이 이 백성들의 잔류민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아버지의 위업이 흠어져 있던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시작되며,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잃어 버렸던 지파 중에서 시작되리라”(니삼 21 : 26)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셨다. “산이 떠나고 작은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함은 베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베게 자비를 행하신 주의 말씀이라”(니삼 22 : 10)

이미 인용해 드린 바와 같이,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백년 전에 이 예언을 받아들여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물몬경 백성의 후손을 이스라엘 지파의 제 위치에 올려 놓기 위해 주님의 손길이 역사했고, 하게 될 일을 보기에 그처럼 어려운 일 같지만은 않다. 초기 형제들의 신앙이 입증된 것이다.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나 레이맨인의 날은 이제야 동이 뜨기 시작하였다. 물몬경 예언자나 말일의 교회 지도자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아직도 주님의 백성이 많은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 레이맨인 국가와 말일성도의 운명을 함께 묶어 주는 예언된 결속감과 유대의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방인과 레이맨인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 이 땅을 소유하게 될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날 복음 회복의 시기에 관해 주님의 천사는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어린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진대, 말씀과 권세와 역사로써 어린양께서 이방인들을 실족케 하는 걸림들을 제거하여 주실 것이요.

“어린양을 대함에 저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을진대 저들은 너희의 조상의 자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인즉,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저들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것이요, 다시는 속박되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흠어지지 아니하리라”(니일 14 : 1~2) *

딘 엘 라슨 형제는 교회 잡지 및 교회 교육 자료 책임자이며,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금식 중이라도 음료수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지요?



러셀 엠 벨슨, 본부 주일학교 회장.

그 식이란 매우 개인적인 일로 대개의 경우 특별한 문제 **□** 를 마음에 두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목적과 관계되는 개인의 특별한 형편에 따라 동기나 금식의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 회원으로서 금식의 법과 관련하여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금식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을 통해 겸손한 마음과 영성을 증진시킵니다. 둘째는 금식을 함으로써 남은 식량분의 금식 헌금을 바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습니다. 셋째는 신체적인 이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침서 (1968년판)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금식 주일을 지키다 함은 두끼를 음식이나 음료를 전혀 입에 대지 않은 채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며 합당한 금식 헌금을 바치어 궁핍한 자를 돕게 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식에서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을 조금하면 좋으니, 많이 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친 금식의 해로운 점은 1972년도 6월자 신권 공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일부 사람이 장기 금식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금식을 해야 할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하루를 금식하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축복을 간구하면 족하다.” 또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도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허약한 사람도 많으며, 건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산모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금식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어린 아이에게 금식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복음 교리 244페이지)

감독에게 바치는 합당한 헌금이란 두끼 식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바쳐진 헌금은 개인에게 영혼을 승화시켜 주며, 고상한 인품의 최대의 특성인 자선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고전 13참조)

금식을 통해서 개인이 얻는 이점은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악령은 금식과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 17:21 참조) 육육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은 금식을 통한 정신 훈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를 멸망시킬 육체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유혹을 이기게 해 줍니다. 신체적인 조건으로 금식을 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 하고는 대개의 경우 이 정도의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금식일에 음식과 음료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금식을 완전히 마쳤을 때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금식은 이를 행할 수 있게 건강과 힘을 준 창조주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확실히 금식은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의 가족 유대에 관해 종종 기막히게 들읍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헤롤드 글렌 클라크 형제

우 리가 죽은 후 모두 가게 될 첫번째 세상이란 영의 세계입니다. (엘 40:11) 여기에서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는 우리가 지상에서 가졌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함께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3 페이지) 이 영의 세계란 대기 장소, 작업 장소, 휴식 장소 그리고 학습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받을 부활의 날을 준비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떠나면 최종적이고 영원한 거처로 가게 됩니다. 이 거처란 우리가 지켜온 율법에 따라 정해진 왕국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처소라고도 불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성 76:89, 107~112)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첫번째 처소인 영의 세계에서 누구를 사귀게 될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영으로 이 영의 세계에 가셨다고 말해 줍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회개한 도적도 그날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눅 23:42, 43) 그렇다면 의로운 자나 별로 의롭지 못한 자나 철저한 악인이나 모두 같은 영의 세계로 간 것같이 보여집니다. 이 세계는 그 안에 다른 거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의 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도 이 세계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그의 육신이 무덤에 누인 후 그가 영육에 있는 이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벧전 3:18~20, 4:6, 복음교리 472~76 페이지, 교성 73:76~74)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영의 세계에서 의로운 자와 사귄 수 있으며, 의롭게 살지 못한 친구를 방문하여 복

음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가 거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불순종했거나 악했던 우리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보이고, 회개하고 대리 침례를 받고 영육보다 나은 곳에 가기에 합당해 질때까지 거주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시현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시대에 불순종하여 익사했던 자들이 영육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한 신권 회원들의 방문을 받고 복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자와 모든 의식을 받지 않은 자를 위해 신권 의식이 이 지상에서 배풀어 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 필요한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의 우정 관계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의롭게 살다가 죽은 영은 의롭게 살지 못한 영보다 폭넓은 우정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롭게 생활한 사람은 모든 친구들과 선한 목적에서 교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의했던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선행 및 대리 침례를 받아 들임으로써 악의 사슬을 끊고 영의 세계에서 보다 의로운 교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특별한 상태 아래 구속되어 있게 됩니다.

부활한 후 영의 세계를 떠나게 되면 고정된 영원한 거처를 갖게 됩니다. 지상에서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가장 높은 영광인 해의 왕국을 물려 받게 됩니다. 이보다도 낮은 왕국을 물려 받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친구가 낮은 왕국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산다면 우리는 그들을 방문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교성 76 : 77-78, 109-112) 낮은 왕국에 거하는 자는 교우를 제한 받는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심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영원히 어떠한 교우 관계를 갖게 되는 가도 결정지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느낌이 우리가 죽는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인격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신앙, 회개, 선행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앨 34 : 34) 이 지상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제약이나 자유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태도나 행위는 돌담보다도 더욱 튼튼히 우리의 상태를 결정지어 주고 감싸주는 영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울타리 속에 속박시켜 줍니다. 일 예를 들면, 예언자 물몬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느끼는 마음으로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함이 정죄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지옥에서 지배는 것보다 더욱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몰 9 : 4)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보다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상 생활에서 느끼는 유대에서도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교성 130 : 2) 우주

인은 달에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걸어 다닐 수 있지만 항상 지구에 귀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우정을 계속시켜 주는 유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누가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둘러 보시고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 3 : 31-35)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친척과는 의무, 이외에도 혈연 관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전까지는 진실로 영원한 형제 자매요 진정한 벗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고귀한 자녀들과 영원한 교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단위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숭고한 우정과 사랑을 지닌 단위입니다. 신전 결혼을 통해서만 이러한 충만한 우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된 가정 생활을 누려야만 해의 왕국에서 우정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교성 132 : 19-2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장 친한 벗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전에서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결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함께 영원히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선한 벗과 좋은 것들을 무수히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정이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간을 벗과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벗이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선하고 영원한 것을 지닌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나의 진정한 벗이라면 나는 그에게 벗이 되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좋은 권고를 주겠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6 페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과 아버지의 뜻을, 살아 있건 죽었건,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벗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되거나 완전해 지거나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교성 128 : 18) 이 일 중의 일부는 하나님의 신전에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압후과 불신앙을 극복한 사람들과 폭넓은 교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소식과 희망, 권고, 위로를 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 아니겠습니까? *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앨리스 스트래튼 글 / 세리 톰슨 그림

오 가족이 나를 두고 교회에 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로 떠나기 직전에 내가 “난 오늘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런 기색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며 할머니가 눈살을 찌프리셨습니다.

“왜 가기 싫지, 어디가 아픈 모양이로구나?” 하시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난 지루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짜 물몬이 우리 집에도 있는 모양인데” 하시며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난 가짜가 아니에요”하고 대답했습니다.

“난 철저한 물몬이란 말이에요”

“네 간증이 흔들리는 모양이로구나?” 하시며 아빠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

“교회 가는 일하고 간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관계가 있지”하고 여동생 로라가 끼어 들었습니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넌 나에게 설교를 하는구나” 하며 나는 화를 냅니다.

“우린 교회에 갈텐데 넌 집에서 무얼하겠니” 하시며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난 조이스, 조안, 그리고 그애의 사촌들과 놀겠어요.”

“교회는 다섯 시에 끝이 나니까 그후에 같이 놀면 어떻겠니?”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에 뿔이라도 난 것처럼 모두들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 친구들과 교회에 안가는 그 애들의 부모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파할 때까지 기다리면 강가에다 우리 오두막 집을 지을 수 없잖아” 하며 나는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그래, 아빠 말씀이 맞아. 우리 집엔 가짜 물몬이 있어”라고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를 내며 “어쨌서 그래요”라고 물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라” 하시며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나를 두고 모두 교회에 갔습니다. 그들이 대문을 나설 때 나도 뛰어 나가고 싶었지만 그때 로라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꼭 교회에 올거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와 있을 거야.”

‘자! 그걸 보여 줘야지’ 하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약점을 감추려고 재빨리 스웨터와 바지로 갈아 입었습니다. 벌써 조안과 친구들이 문밖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나가”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곧 나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강가에 가서 노는 일은 신이 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일찍 떠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마음을 고쳐 먹고 교회에 갈 시간은 있었습니다. 내가 망서리고 서 있을 때 조이

스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고양이가 죽었니? 아니면……”

“죽긴 왜 죽어. 자 가자!” 하며 나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맨 앞장을 서서 달렸습니다. 강가에까지 왔을 때 몹시 숨이 찼습니다.

‘강이다! 신난다!’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모래와 바위 사이를 흐르는 작은 시냇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햇빛이 찌는 듯이 내려쬐 옷에 땀이 났고 신발 속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 찼습니다. 갑자기 조이스가 소리쳤습니다. “야! 누가 우리 오두막집을 부셨어.”

정말이었습니다. 낙엽송 가지로 지은 오두막집이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신발의 모래를 털면서 버드나무 그림자에다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내 눈가에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누가 낙엽송 오두막집을 짓자고 했지?” 하며 내가 통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안은 화가 난듯 양손을 허리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너 화가 난 모양이구나? 왜 그래? 네가 오두막 집을 짓자고 하지 않았니.”

“난 아무렇지도 않아! 좀 생각할 일이 있어. 자! 나를 두고 너희들이나 재미있게 놀렴.”

“좋아! 그럼 쉼 두고 우린 저곳으로 가자”하고 조안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신발과 양말을 벗어 들고 달려 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게 간증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지.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 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많이 들어 왔어. 감사할 줄 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지. 그렇지만 간증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지, 나는 꼼꼼이 생각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기도를 하기 위해 숲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과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웠지만 그런 생각을 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물몬 경의 세 목격자에게 금판을 보여 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천사를 보지 못했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 동생들이

아빠, 엄마, 할머니와 함께 멋진 옷을 입고 예배를 보는데 나 혼자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이 바위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일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무도 그런 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도 그들은 간증을 갖고 있거든.’

나는 울음이 나와 바위에 기렸습니다. 나도 간증이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 주세요” 하며 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점점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도 간증을 가지고 있어. 나도 항상 그런 간증을 갖고 있었어. 요셉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세 목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안다면 결국은 나도 알고 있는 셈이지. 자 얼마나 기쁜가! 내 뺨에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하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애들아 나 좀 봐”하며 나는 기쁨 소리질렀습니다.

“그래 누가 살아 왔니”하며 조이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자 집으로 가자. 주일날은 이렇게 보내면 안돼”하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촌 중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집에선 이런 장난을 하게 놔 두지 않을걸.”

“물론이지”하며 나는 동의했습니다. “우린 앞으로는 주일날 강가에 나오지 말자. 그 오두막집은 내일

다시 짓자.”

“오두막집이 문제니?”하고 조안이 물었습니다.

“그럼, 납업송 오두막집은 중요하지.”

내가 집에 왔을 때 가족은 이미 모두 교회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재미있게 놀았니?”하며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금식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놀라게 해 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간증회 때 나는 제일 먼저 간증을 하려고 연단에 올라 섰습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을 내려다 보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할 말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연단 위에는 “내 구주 살아 계시다”라는 폐회 찬송을 적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 속 깊이 숨을 들이 쉬고는 “나는 정말로 내 구주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참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하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내 자리에 돌아 와서는 아빠와 로라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구리빛의 큰 손으로 내 손을 감싸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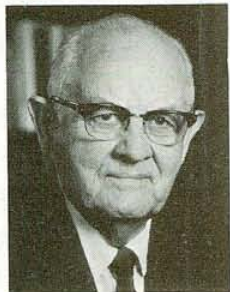




대관장단 이야기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킴볼 대관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한 니파이를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일 3:7)

킴볼 대관장님은 수년 동안 주일학교와 초등학교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월요일 밤에 건초를 거두는 형들을 돕고 있을 때 초등학교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야 해요”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갈 수 없어. 우릴 도와야 해”하고 형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가게 할텐데”

너를 믿었는데

앤 엘돈 태너
대관장단
제 1 보좌



나는 열 네 살 때의 경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친은 감독이었습니다. 와드에 장례식이 있어서 아버지는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형과 나에게 아버지가 안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

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오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맡겨진 일을 미루고 송아지를 타고 놀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노는 동안 돌아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는 회초리로



십일조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 2 보좌

우리 가족은 멕시코에서 피난을 온 피난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동시에 멕시코를 떠났습니다. 모두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를 떠날 때 큰 트렁크 하나 밖에 가지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엘 가더라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하였습니다. 텍사스의 엘파소에서 잠시 머문 다음 그들은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로 가서 목수일을 시작했습니다. 후에 아이다호주 오클리로 이사하여, 말일성도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을 잃으

면 다른 사람의 수입을 나누어 살아야 하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나의 삼촌은 아이다호주에서 한 겨울 동안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 교편을 잡아 월 80불을 벌 때였습니다. 17명의 식구가 월 80불로 살아 가야 했습니다. 집세를 내야 하고, 양식을 사야 했고, 연료를 사야 했습니다. 눈을 파고 나무 가지를 쭈는 것이 내가 연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무를 파내고 어머니는 이 나무를 난로에 때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80불에 대한 십일조를 내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안계셔. 오늘은 못갈 줄 알아”하고 형들이 말했습니다.

그의 키를 넘을 만큼 건초 더미가 쌓였으나 마침내 마차에 다 싣고는 그는 마차 뒤에 타고 가다 살짝 빠져나와 집회소로 갔습니다. 출석을 부르기 직전에 도착해서 그는 완전한 출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이와 같은 결단력은 후에 선

교사 시절에도 나타났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훌륭하고 활동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세인트 루이스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는 문이 반쯤 열린 어느 집에 피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닫으려 나오는데 부인에게 “새로운 피아노를 갖고 계시는군요” 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네, 새로 샀지요”하며 그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볼표로군요. 제 이름도 김볼 인데요”하고 말하며 그는 문을 좀 더 열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노래와 피아노를 연주해 볼까요?”

“그래요. 어서 들어 오세요”하며 그녀는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쪽으로 다가 가서는 ‘오 높은 영광 보좌’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복음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

매를 맞은 적이 없었지만 그때만은 매를 심히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애야, 난 너를 믿었었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를 믿었었는데”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나는 엘돈 태너를 믿었었는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결심은 내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이 평생 동안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1976년 2월 15일 파고파고 지역 대회, 일반 총회 말씀)

는다면 우리 가족이 40불, 삼촌 가족이 40불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면 각 가족이 36불 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모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감독에게 십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웠으나 나는 따스한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그러한 훈련 덕분에 주님의 약속이 진실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도 십일조의 법을 지킬 때 훌륭한 느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결혼한 직

후의 상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학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루에 8시간 우체국에서 일하고,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첫 아기를 잃었고, 병원에 큰 부채를 지었습니다. 나는 우체국을 떠나 변호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9월에 사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11월에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달의 십일조를 내는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십일조를 낼셈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퇴직금이 나오지 않았으며, 12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에 나는 감독에게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못했다고 보고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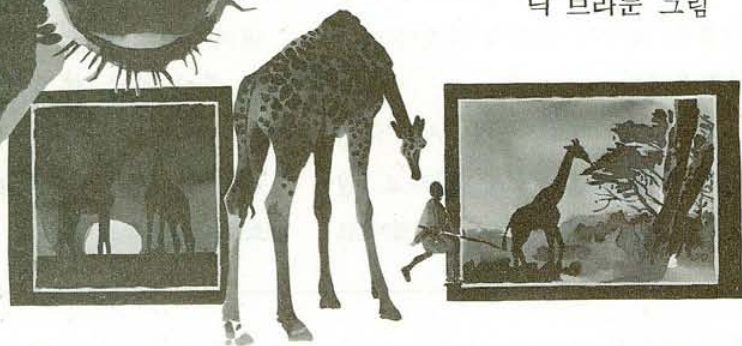
야 했습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아서 기록을 해 두었다가 8퍼센트의 이자와 함께 분할로 미납 십일조를 다 지불하였더니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행위를 이해하시고 받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께 내 경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특별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아낌없이 정직하게 십일조를 내는 사람에게 평안과 위안과 확신이 찾아 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빛을 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오면 십일조를 조금 더 내십시오. 너무 적게 내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내는 편이 좋습니다. *



초원의 친구 기린

머리 피 프링글 글
틱 브라운 그림



몇 마일 안 가서 이들은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 때문이 아니라 목에 줄을 감은 세 마리의 기린 때문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목이 줄에 걸렸던 것입니다. 기린들은 전선 줄이 너무 심히 감겨서 숨이 막혀 죽기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전신국에서는 노인의 충고를 받아 들어 전선줄을 10미터나 위로 올렸습니다. 그 후로는 기린의 목에 전선줄이 걸리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고 낮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기린은 특별한 동물입니다. 어떤 기린은 키가 6미터나 됩니다. 이런 키는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기린은 다른 모든 동물처럼 일곱개의 목뼈를 갖고 있습니다.

기린은 앞으로 길게 내민 어깨와 깊이 파인 가슴 때문에 큰 얼룩 반점이 밑쪽으로 내려 퍼져 있습니다. 다리는 모두 비슷한 길이입니다. 어떤 숫 기린은 무게가 1,100킬로그램을 넘습니다. 암놈은 2,3피트가 더 작고, 무게도 425킬로그램에서 450킬로그램이 보통입니다.

몸의 크기와는 달리 기린은 유순한 동물입니다. 채식을 즐기며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한때는 이 검은 대륙에 기린의 뼈가 살았지만 기린 고기가 맛이 있고 가죽이 유용하게 쓰이자 그 수가 급속히 줄어 갔습니다. 기린의 가죽은 매우 질기며 그 두께가 1인치나 되

몇 년 전 남아프리카의 케냐에 600마일에 달하는 첫 전신선이 가설 되었으나 가동 1시간 만에 사고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의 본부 사무실에 새로운 전선의 일부가 못쓰게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고장 수리반이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장을 싸고, 총탄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떠났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한 노인이 이들의 행동을 물끄러미 보면서 웃었습니다.

“사고라도 난 모양이구료” 하면서 그는 껄껄거렸습니다.

“글쎄, 무슨 일인지 모르죠”하

며 한 젊은이가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설치된 지 1시간 만에 고장이 났다면 틀림없이 화가난 원주민의 장난일 거요.”

“천만에”하며 노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들 젊은이들은 타잔 영화도 못봤오. 틀림없이 사방을 두리번 살피던 목이 긴 친구 때문일 거요. 난 벌써부터 전선을 높이 세우도록 당신들 상사에게 말해 왔었소.”

고장 수리반원은 빨리 서둘렀으며, 이 노인의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타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러 달렸습니다.

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쏘도 쏠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사냥꾼에게는 기린 가죽으로 만든 마구나 고삐나 채찍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린의 고기는 마차 여행자의 식량으로도 사용됩니다. 원주민도 역시 이 고기를 즐기며, 질긴 힘살을 화살줄이나 악기 재료로 사용합니다. 가죽은 방패로 사용합니다.

기린의 긴 목이 사고를 내는 수가 있지만 높은 아카시아 나뭇잎을 따먹는 모습을 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린의 입술도 유용합니다. 몹시 길고 긴 털이나 있어 가지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윗 입술이 아래 입술 위로 돌출해 있으며, 30센티나 되는 혀는 나뭇잎이나 가지를 따는 정밀한 기구 역할을 합니다. 기린은 앞턱에 앞니가 없으며 혀가 나무 가지를 잘라 앞니 앞쪽으로 밀어다 줍니다.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큰 기린은 선체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일어나고 앉는 것 보다는 힘이 덜 들고, 사자와 같은 맹수의 공격을 피하는 데도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키가 큰 놈도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잠을 잡니다. 목을 뒤로 틀고 고개를 궁둥이에다 갖다 대고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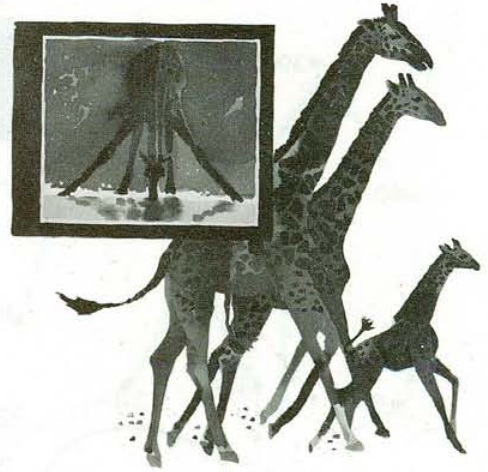
기린은 다섯 마리에서 스무 마리

가 함께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코끼리처럼 기린도 깊은 숲, 늪지대, 진흙을 피해 조심성 있게 걸어 다닙니다. 무거운 지체를 받치는 다리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진흙 땅보다는 굳은 땅을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늪은 숫놈이 공격적인 내장 노릇을 하는데 자기 새끼나 전체 무리를 지키는 파수꾼 노릇은 암놈이 맡아 합니다. 기린을 기습 공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데 이는 기린이 아프리카의 동물 중 가장 시력이 좋고 키가 커서 시계가 넓기 때문입니다. 미각도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항상 조심성있게 주위를 살피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물가로 접근합니다. 물이 충분한 곳에서는 정규적으로 1주일에 약 2갈론을 마십니다. 그들은 강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며, 건조한 곳에서는 그들이 먹는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몇 주 동안 그냥 지냅니다. 기린의 얼룩진 가죽, 걸음걸이, 물없이도 지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한때는 '낙타 호랑이'라고까지 불리워졌습니다.

기린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머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머리로 서로치고 받고 싸우는 숫놈의 힘은 4미터 길이의 손잡이에 4킬로 무게의 햄머를 달고 내려 치는 것과 같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놈은 공격을 피하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린은 털가죽으로 뒤덮인 짧은 뿔을 갖고 있습니다. 이 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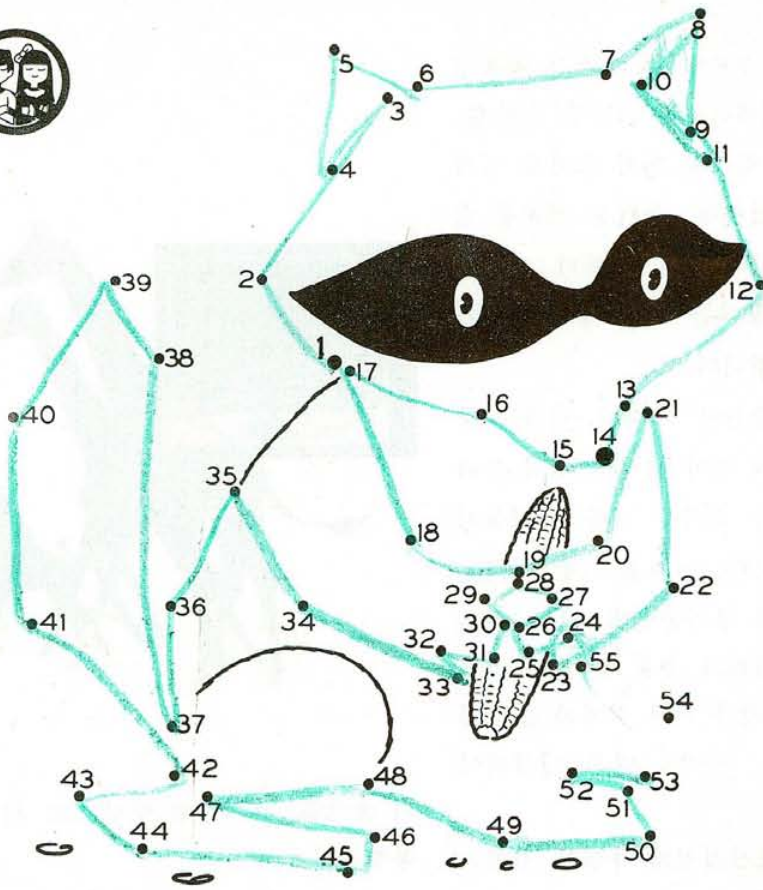


이 공격을 격퇴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상한 일은 기린이 조용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이들은 변함없는 슬픈 눈초리로 상대를 응시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짐승은 병어리로 오인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암놈은 낮은 소리로 새끼를 부르며, 가끔 소리를 내지만 싸울 때만은 침묵을 지킵니다.

기린은 아침 저녁으로 먹고 낮 동안에는 쉽니다. 끔찍 않고서 있으면 아카시아 나무의 색깔과 기린의 얼룩 무늬가 어울려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움직입니다. 이들은 시속 50킬로의 속도로 아프리카 벌판을 돌아 다닙니다.

이 기린이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사라진다면 아프리카는 가장 멋진 색깔을 하나 잃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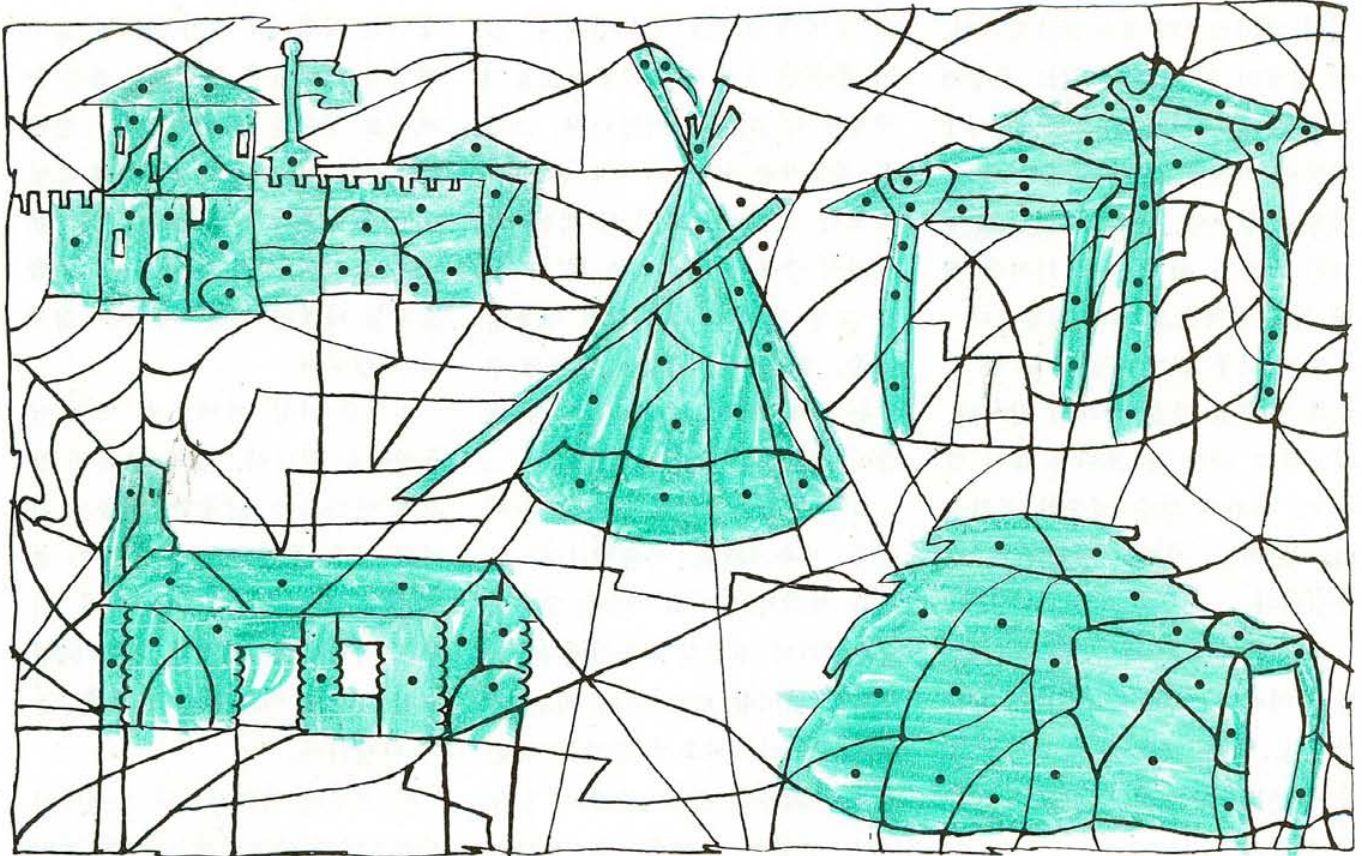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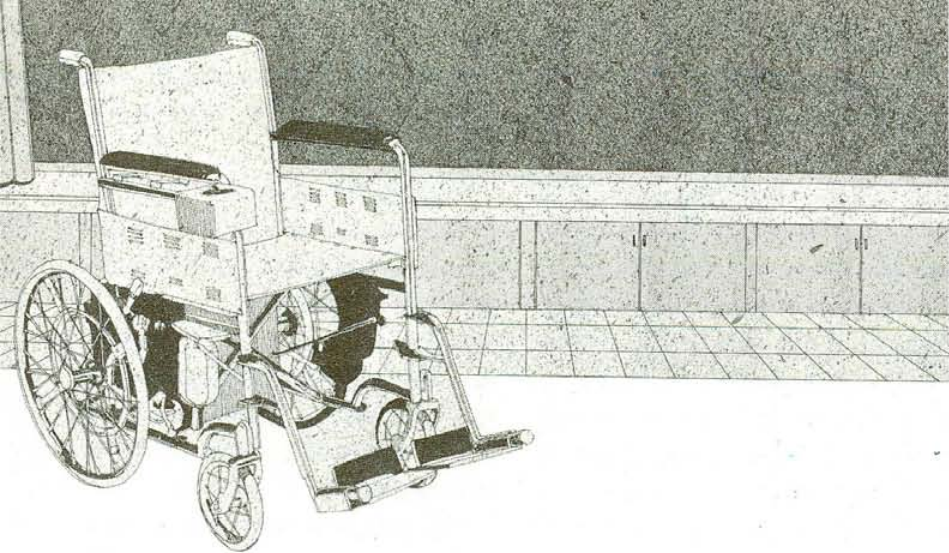
가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버타 엘 페어올

김근하 : 문



점이 있는 부분을 색칠하세요.



스티븐

핀 호튼 글
에드 흄즈 그림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베당의 뒷쪽 구석에서 위와 같은 간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반 와드 회원에게는 귀에 익은 음성이고 자주 듣던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돌아다 본 방문자라면 홀딩 체어에 몸을 기대고 그의 양팔로 몸을 의지하고 다리를 힘없이 늘어뜨린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이 불구의 소년이 어떻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스티븐 파웬스는 네 살이 되었을 때 근육 질환을 일으켜 그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었더라면 그의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의사의 최종 견해를 듣고 우리는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스티븐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독립심을 키워 주기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형이나 동생들과 똑같이 일하도록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후에 근육이 당겨져 발끝으로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몇 가지 일을 덜어 주고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으며, 스스로 일감을 찾아 일했습니다.

“나는 어느 선생으로부터 스티븐과 새로운 소년을 동시에 그녀의 책상 앞으로 오도록 불렀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티븐은 책상 앞에 오자 그의 발을 받쳐 놓고 한 손을 선생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새로운 소년이 ‘괜찮니’하고 물었습니다. 스티븐은 ‘발이 말을 잘 안듣지만 괜찮을 거야. 고맙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스티븐은 앉는때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2살 때 학과 시간에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다가 무릎에 피부경결

증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한 것을 꼭 해냈습니다. 그다음 해에 학교에서는 스케이 덴스를 배웠는데, 선생님은 스티븐에게 도서관에나 가서 책을 읽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난 싫어요. 참석할 거예요”라고 스티븐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춤을 배운단 말이니?” 하고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벽을 붙잡고 걸었고, 혼자서는 서서 균형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 이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전 레코드를 들고, 판을 갈고, 스템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배우겠어요. 선생님은 아이들과 좀더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코드를 보살피고 춤을 지켜 보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농구 기록자, 여자 체육팀의 관리자, 신문사 편집인, 학생회 간부 등 스티븐은 다양한 직책을 맡아 일했습니다. 그가 학교 재정 위원장직에 출마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연설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눈으로도 내가 돈을 갖고 달아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학교 활동에만 그의 시간을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이 여덟 살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였으므로 그는 교회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에도 나갔으며, 유년대에도 참석했고, 그후 곧 소년단에도 입단하였습니다. 그는 신권 승진을 받아 봉사하였으나 어느 날 성찬을 돌리다가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찬을 돌리다 넘어졌지만 쏟지는 않았다. 다시는 그런 위험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나를 보는 사람의 눈길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집사들의 차례가 오면 그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일을 맡았음

니다. 교사로서 그는 성찬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으며, 정월회 서기 일도 맡아 보았습니다.

스티븐은 근 4년 동안 일 주일에 5일은 5시반에 일어나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반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는 2년동안 개근했고 한 해는 하루의 결석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 해에 그는 연극 경연 대회에 참석하여 우승을 하였으나 그곳에는 새벽반이 없어서 사흘동안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븐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일을 하는 동안 그의 병세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목 근육이 약화되어 머리가 뒤로 쳐졌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에도 벽을 붙잡고 몇 발걸음을 간 다음엔 다시 쉬었다가 앞을 보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까지도 그에게 다가 와서는 “어찌된 일이지?” 혹은 왜 이렇게 되었니?”라고 물었습니다. 때때로 식당에서는 그가 나쁜 습관이 있는 아이로 오해되어 접잡게 앉으라거나 자리를 너무 차지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이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라고 스티븐은 대답했습니다.

그의 형인 제임즈가 그를 부축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티븐을 놀리기 시작했고, 그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이 방과후 학교에서 집을 올 때는 형 제임즈가 중간 지점까지 와서는 부축해 주곤 하였습니다.

제임즈가 스티븐을 부축해 가는 중간지점에 쇼핑 센터가 있어 보통 여기서 시간을 내면서 쉬어 가는데, 경비원 아저씨들의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곧 스티븐은 모든 경비원들과 친해졌고, 그들도 그가 앉아 쉴 쇼핑 차를 그에게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스티븐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사람들을 주시하기 때문에 쉽게 사귀고 친구가 됩니다. 하루는 쇼핑 센터에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리로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아저씨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는 그곳으로 가 경비원에게 진급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고 새로운 임무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설명을 했고 들이서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스티븐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승진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제복팔소매에 금줄이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하나였거든요. 이번 주에 두 개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짐작한 거죠.’”

스티븐이 사람을 보는 눈에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는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 학생이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스티븐을 찾아 갔지요. 그는 자기 일보다는 항상 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어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남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지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 가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 일 이외에는 모두 남을 위한 일만을 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는 항상 ‘나 자신을 우울하게 하고 싶진 않아’라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연극을 하는 누이와 동생들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이 배우가 되면 스티븐은 감독이나 효과, 조명 등을 맡았습니다. 그는 고등 학교에서와 교회 로드쇼에서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도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은 친구에게 “스티븐은 펴 수 없고, 나는 끌어 당길 수 없고, 제임즈는 노래할 수 없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티븐과 함께

생활하는 파렌스 가족은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자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힘에 부쳐 고등학교엘 다닌 최근 몇 년을 빼고는 졸업 학교에서 수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평균 B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학생회가 선발하는 금년의 장한 시민에 뽑혔고, 고등학교에서 매년 수여하는 봉사상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해에는 청년 시민상과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학교 새벽 방송 프로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거의 정규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여러 가지 직책도 맡았습니다. 와드 회원은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 상향회 서기와 신학연구원 대학부 반 부회장직도 맡았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장로들을 자주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스티븐은 그의 형 제임즈가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형 제임즈를 솔트레이크 시티 선교 본부까지 바래다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도 꼭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며,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의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그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선교사와 같은 활동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매일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몸이 뒤틀리고 전신이 마비되어 눈을 뜨고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뉴 웨스트민스터 와드의 로드쇼의 기본을 쓰고 감독을 맡은 것이 그의 마지막 활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밴쿠버 브리티쉬 컬럼비아 스테이크가 주최가 되어 자 와드의 로드쇼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원은 스티븐의 로드쇼 “오락의 세계”가 최우수상을 수

상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서서히 줄어들자 사회자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최우수 작품 로드쇼를 쓰고 조감독을 맡았던 스티븐 파렌스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이 슬픈 사실을 지금까지 감추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공연

합쳐 18세라는 나이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초인은 아니었으며, 덕의 귀감도 아니었고, 성자도 아니었으며, 다만 따뜻하고 사랑에 찬 정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선교 본부로 2년간의

에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에 있는 밴쿠버 스테이크 센터에서 스티븐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화환을 보내는 대신 친구들은 그가 다닌 고등학교에 그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세웠습니다. 매년 다른 청소년을 돕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참된 인간애를 발휘한 졸업생에게 100불을 지급하고 “슈퍼 스티브 휴머니타리안 어워드”도 동시에 수여하였습니다.

밴쿠버 브리티쉬 컬럼비아 스테이크는 “스티븐 파렌스 기념 스포츠맨십 상”을 제정하여 서로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규율을 지키며, 진지하게 노력하고, 연례 성경 시험에서 훌륭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한 신학 연구원 중등부 팀에게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추도식에는 그를 아는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모여 그를 추도했습니다. 학교 친구는 스티븐이 학교와 급우들에게 보인 훌륭한 모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재능과 봉사하겠다는 열의, 학생회에 보인 모범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의 제사 고문은 스티븐의 교회 활동과 야외 활동을 위해 보인 열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감독님은 스티븐의 영적인 업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그가 지녔던 강한 간증과 그가 어떻게 그러한 간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스티븐의 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회원들은 스티븐이 보여 준 사랑을 통해 비회원들과 함께 모여 스티븐의 놀라운 성품의 여러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1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으며,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불구의 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께서 성실한 자에게 주신 약속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연고라”(교성 42:46) *

장로님 기운을 내십시오

동생은 형제님처럼 아버지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 참여하신 배역진과 무대 기술자, 그리고 그토록 훌륭한 일을 해낸 스티븐의 가족에게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로드쇼를 스티븐에게 바칩니다.”

“어떻게 그의 가족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라고 누군가가 물었고, “스티븐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었겠나?”라고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고 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내가 부활하여 완전한 육신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음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 회원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스티븐은 민감한 마음과 유우머와 사물을 적시하는 능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의 능력을 한데

부름을 받고 떠날 나이에 그는 지상에서 그의 사명을 끝마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따를 모범을 보여 주시게 하기 위해 순수한 사랑의 세계로부터 그를 보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면 마음 속이라도 어느 정도 불구자적인 상태를 지니고 있어 서로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교훈이 아닐까요?

스티븐의 형 제임즈에게 보낸 전스 테어크 부장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형제님을 뒤따라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가르칠 준비를 다했고 계속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무거운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영은 굳게 설 수 있으며, 형제님처럼 힘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려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 기운을 내십시오. 동생은 형제님처럼 아버지의 사업

총관리 역원의 아내 : 아이다 젠슨 롬니 자매

모린 젠슨 와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토지나 값진 도자기를 유산으로 남겨 줍니다. 그러나 매리온 지 롬니 부대 관장의 부인인 아이다 젠슨 롬니 자매가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식탁에 앉아 들은 선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값진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제 외조모는 북부 덴마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의 누이로 미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시내에 있는 말일성도 가정에 일을 도우러 가셨어요. 당시 덴마크에서는 물몬들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미나 할머니는 주일날만 되면 가족과 교회에 나갔지요” 라고 롬니 자매는 말합니다.

“미나 할머니는 교회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여 일을 하면서도 늘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그녀는 곧 침례를 받았지만 물몬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사실을 감히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휴가를 얻어 집에 와 있는 어느날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오 높은 영광 보좌’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녀의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가사를 듣고 계시다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평생 동안 믿고 있던 그런 가사구나’ 미나 할머니는 물몬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가족이 침례를 받았읍니다.”

“그 가족은 재산을 많이 갖지 못한채 유타를 향해 덴마크를 떠났지요” 라고 롬니 자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미나 할머니는 시온을 보지도 못하고 평원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후손이 그녀의 간증에 대해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나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없었을 거예요.

롬니 자매의 조부 역시 덴마크에서 왔읍니다.

“그분은 시온에 오기 위해 기름진 옥토를 떠났읍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시온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며, 그가 시온에 도착하면 40에이커의 땅을 농토로 받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타주 레반에 정착하여 그가 고향에 남겨 둔 땅처럼 기름지지 못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되돌아 가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모님께서서는 그곳에 남자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지나치게 없어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더라도 말이예요.

“저의 조모는 세상을 떠나시던 날 모든 가족을 침상 옆에 불러 모으시고 모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 복음의 진리를 간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회원으로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아이다 롬니 자매는 그녀의 조부가 정착한 유타주 레반에서 태어났읍니다. 그녀의 부모는 복음의 희생의 율법을 그대로 생활에 실천하셨습니다. 그녀가 여섯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교회 본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것은 대관장단으로부터 온 선교 부름으로 그는 북부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아내와 세 자녀를 떠나야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15불과 노란 젖소 한 마리만을 남기고 떠나셨단다.’ 하시며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버지에게 송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빨래, 다림질, 병자 간호 등을 맡아 했고, 이웃을 위해 바느질도 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여덟번째 생일을 맞는 날 귀환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계시는 동안 낡은 풍금을 연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을 연주해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실때 들으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년 만에 보는 가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귀환하신 직후 우리는 와사치군으로 이사를 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 주변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누이와 저는 도보로 가서 브리검 영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우리에게 열차편으로 식량을 보내 주셨어요. 우리는 자취를 했지요.



“저는 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가족과 함께 아이다호 폴스로 이사를 했어요”라고 롬니 자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부모나 조부모가 지녔던 것과 같은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다호 폴스 스테이크 주일학교 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임무는 스테이크 내의 교사들에게 각 워드 주일학교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과를 가르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임원 중에는 아이다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의 아내 역시

항상 저의 반에 들어 왔습니다. 그녀는 비회원이었어요.

“어느날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공과를 준비하는 동안 문득 그녀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전에는 그녀가 제 반에 참석해도 별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그날 따라 그 공과를 하는데 그녀가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몹시도 가슴이 두근거려 졌습니다.

“그녀는 대학 출신이고 교양이 많은 여자지”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공과 시간에 그녀에게

납득이 잘 만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녀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저는 어머니에게 가서 ‘천 이번 공과는 못 가르칠 것만 같아요. 난 그 시험이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니 무슨 말을 하는거니 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저는 ‘요셉 스미스가 시험을 보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수차 배워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몰라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의 그러한 대답은 어머니를 크게 실망시켜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옳은가를 알아야 했을 때 요셉 스미스는 어떻게 하였지? 너도 그분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저는 이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전에 해보지 못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옳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저 자신만을 위해서 알려 주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 날 주일학교 공과 때 저는 전에는 해보지 못한 특별한 공과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만을 되풀이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롬니 자매는 학계에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이디호 폴스와 릭스 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유타 주립 대학, 브리검 영 대학, 유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아이디 켈슨과 매리온 롬니는 롬니 장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켈슨 자매가 선교사로 떠나는 사촌을 마중 나갔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1924년 9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첫 해 동안 매리온 형제님은 법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당시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요. 저녁에 콜트레이크 극장을 가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는데 때로는 입장권 2장을 함께 살수가 없어 한 사람은 발코니에서, 다른 한 사람은 메인홀에서 따로 구경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10센트짜리 전차표를 못사서 걸어오곤 했어요.”

아이디 롬니 자매는 남편에 대해 말하면서 미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젊은 연인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다정한 부부입니다. 롬니 자매는 매일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일과 중이라도 그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전화를 합니다. 그녀는 저녁에 롬니 형제가 집에 돌아오면 입을 수 있게 신문이나 잡지에서 남편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오려 스크랩을 해 줍니다.

“우리는 둘이 잘 웃어요. 남편은 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일부이지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롬니 가족은 훌륭한 한 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은 느낌까지도 읽습니다.

“우리가 신혼이고 아직 매리온이 사업에 바쁠 때 저의 친구들이 몰려 와서 저에게 정치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간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차기 대회에 나갈 대표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지요. 제의에 마음이 상당히 끌렸지만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언젠가 남편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난 롬니 자매의 남편으로만 알려진 인물인가 봐’ 라고 농담을 한 것이 기억 났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남편은 물론 농담으로 그 말을 했지만 저는 그가 정말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디 롬니 자매의 생각이나 외모나 거시적인 안목이나 경험은 모두 그녀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생이 모두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첫 아기를 낳자마자 잃었습니다. 그녀는 등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이 저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 ‘주님은 저를 아시죠. 주님께서 제 문제를 아세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러 가지 고초를 결코 겪지 않게 된다고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할 사람은 없지요. 담담하게 직면해야지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깊습니까?’ 라는 조용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여름에 손자들이 수상스키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 봅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들에 대해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오? 모든게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오. 당신의 신앙은 얼마나 깊소?”

롬니 자매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맞으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변화 많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해도 우리는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지요.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안겨 주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

모린 켈슨 워드 자매는 두 자녀의 어머니이며 현재 월메트 일리노이스 스테이크 시카고 워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건설적인 삶



리그랜드 리차즈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값진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이 건설적인 것에 목표를 두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북미 서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얻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알래스카 캐나디안 선교부에 있을 때입니다.

선교부장의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녀의 친구 하나를 교회에 개종시켰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은 딸을 여름 방학 중 선교사로 불러 앵커리지로 보냈습니다. 당시 선교부장과 나는 장로들이 칩페식을 거행하는 곳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열 한 명이 칩페를 받았는데, 이들 중 아홉 명이 그 소녀와 그녀의 동반자가 개종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 한 남자는 당장이라도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아도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

였습니다. 칩페식이 끝난 다음 선교부장의 딸이 내게 와서는 양볼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즈 선교부장님, 저는 이처럼 행복감을 느끼 적이 전에는 없었어요” 여름 방학을 선교 사업을 위해 마친 이 소녀의 결의는 과연 훌륭한 야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보고를 저장할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을 때 한 감독이 어느 청년에게 여름 방학 동안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의과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일을 꽤히 승낙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청년 친구를 찾아 다니며 “우리 교회에서는 나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주었어. 그런데 나는 충분히 준비를 하진 못했거든. 내게 시간을 좀 내 줘서, 너를 상대로 선교 자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게 해 주겠니?”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작해서 그는 고등학교 친구 네명을 여름 방학 동안 개

종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다니건, 어디에 있건, 무슨 활동에 종사하건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지침으로 그 말씀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곧고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몇 년 전 리차즈 자매와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스위스 신전에서 막 돌아 온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6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선교사가 우리 집을 찾아 와서 복음을 가르쳐 줄 때까지 인생의 참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홀랜드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하루는 밤 늦게 선교부 사무실 옆을 지나가던 한 회원이 선교부장실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정복음 교육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나의 사무실 벨을 누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부장님, 사무실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내가 집에 돌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선교사가 우리 집을 처음 찾았을 때와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많이 달라졌어요. 습관도 달라졌지요. 생각도 변했지요. 모든 게 달라져 도저히 같은 사람같이 생각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청소년 여러분의 의로운 마음가짐에 따라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값지고 뜻있는 일을 이룰 수 있게 야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우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제랄드 알 쉬퍼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우리 집에서는 가족 기도를 갖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험을 할아버지 댁에서 처음 가졌읍니다. 나는 그때 받은 느낌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서 행해지는 말씀을 전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때 그 가정에는 조화, 단합,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읍니다. 그때 느낀 단합된 가정에 대한 기억이 내가 교회의 여러 직책을 맡아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내가 감독으로서 와드의 청소년 노년의 모임에서 한 자매로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와드 청소년의 복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고 그들에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을 간구하고 감독으로서서는 물론 와드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더해 주었읍니다. 이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단합된 느낌을 맛볼 수 있었읍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세

상에 왔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읍니다. 눈물이 우리의 눈에 고였고, 모두 한 목적으로 단합된 느낌을 받았읍니다.

마태는 구세주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기록하였읍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19~20)

그렇다면 기도란 우리가 주님의 영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시는 매개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교회가 조직된 직후 이러한 교훈을 계시를 통해 예언자 요셉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간구할 수 있고, 이때 우리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성29:6, 50:29~30 참조) 우리는 또한 개인의 영적인 준비가 단체 기도에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이 정화하여 성신의 영적인 지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도 배웠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단체 기도의 모범을 보



여 주셨습니다. (마6:9~13 참조) 이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전체 그룹을 위해 기도하신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기도의 목적은 물론 기도를 드리는 집단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되는 목표는 참석자 전원을 단합시키고 그들이 바라는 특정 목표로 그들의 믿음을 결속시키는 데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그의 신권 지도자가 함께 곁손히 그들이 맡은 가정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나 가정 복음 교사가 방문을 하기 전에 갖는 기도가 그 좋은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성찬식이나 정원회 모임과 같이 많은 회중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갖는 개회나 폐회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갖는 기도는 자녀와 부모가 갖는 기도처럼 단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면서 갖는 선교사 동반자의 기도나 집행役員 모임, 스테이크 부장단 모임,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회장단 모임, 성찬식, 주일학교, 기타 일반 대회에서 갖는 기도는 모두 단체 기도이며,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기도자는 겸손하고 주님의 영을 받기에 합당하여 성신을 통해 전체 그룹에 유익이 될 만한 축복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도자의 말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단체 기도 때마다 행해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나의 계명에 좃아 기도로 연합하여 신앙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되리라.” (교성 29:6)

나는 단체 기도를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때 십이사도 보조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와 스테이크 부장단이 가진 모임에서의 경험입니다. 이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의 아기가 모두 생명이 위태롭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파우스트 장로는 모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을 합하여 기도를 드리자고 제의하여 스테이크 부장이 이 자매와 아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이 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나는 시에라 산중에서 가진 상향회 청년 야영에서의 간증 모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반의 한 소녀가 반항을 하여 우리는 모두 그녀를 설득시키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날 간증 모임에서 개회 기도를 한 한 소녀는 그 그룹 중에서 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겸손히 하여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미스가 그의 예언자이고, 교회의 대판장이 예언자이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던 많은 사람들의 하나였습니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치솟은 나무로 둘러 싸인 밤하늘 별빛 아래서 가진 이날의 간증·모임은 정말로 영감에 찬 모임이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쯤 해서는 모두가 영감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 반항을 해오던 그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그녀가 받은 영적인 감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는 자기는 성신으로부터 교회가 참으로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모든 지침에 따를 것과 신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가 신전 결혼을 했을 때 피로연에 참석하여 나는 다시 한번 시에라 산에서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과 기도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던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를 받고 오랜 동안 적대감을 가졌던 두 사람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권고의 이야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기도를 드리자고 청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한 후 이들에게도 차례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가 단합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오래 묵은 불만이 사라져 버렸고, 이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하고 주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함께 단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과거 수년 동안 스테이크 대회나 워드 대회 혹은 노년의 모임에서 말씀을 하도록 지명을 받으면 늘 개회 기도를 주의하여 경청하였습니다. 기도자가 연사에게 축복을 간구할 때면 나도 늘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흔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연사와 듣는 청중이 영적인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회중이 성령이 나를 통해 주는 말씀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단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보다도 더 영적이고 차원 높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체 기도의 성패는 기도하는 사람의 준비와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제랄드 알 쉬퍼 형제는 전자 기술자로, 현재는 미해군의 1년 계획에 민간인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포크 버지니아 스테이크, 버지니아 비치 워드에 속해 있다.

지역 지도자 메시지

경전의 말씀을 실천하자

서울 스테이크 부장 제 1보좌 김창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975~587년까지 388년간의 역사를 열왕시대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함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300여 년간을 남북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싸우다가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앗스르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망하였고 남조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잡혀가 망하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시작하여 남북이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300여년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암흑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쪽끼리 서로 외세를 의지하여 서로 뜯고 싸우는 시대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우상숭배와 더러운 죄악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부패해서 몇번이나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군왕이 잘아 앉은 동안 민심은 극도로 흉흉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했던 것은 종교적인 부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 타락 하였습니다. 문짜이 떨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먼지가 성전안에 가득해도 빛자루 하나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시아왕이 제15대 왕으로 8세에 즉위하여 16세때 어린 몸이지만 용감하게 성전을 수리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서기관 사반과 제사장 힐기야는 성전 수리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수리 공사를 하던 역군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구석에서 이상한 책한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자세히 보니 그 책은 그 민족이 생명과 같이 소중히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책은 모세가 말년에 자기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친필로 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도외시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이리 굴러 다니고 저리 굴러 다니다가 300여년간을 율법없이 저들 마음대로 방종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율법없이 살았다는 것을 보면 저들의 비극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란 뜻으로 척도나 표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입

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저들이 왜 소중히 보관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 버렸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배워도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고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 책을 통하여 많은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저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그 책을 잊어 버리게까지 된 것입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읽었습니다. 이 율법책 읽는 소리를 듣던 요시아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열조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고도 하였습니다.

다시 요시아왕은 예루살렘에다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저들 앞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책에 기록된 언약이 이루어 지리라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을 서약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아무리 읽어도 감화를 받지 못하고 취미를 얻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만한 영적 생명이 죽은 까닭입니다.

지금 이 경전의 말씀들은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생명을 버려 가면서 지키던 그 경전 그대로입니다. 이 경전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와 생활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전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